4차 산업혁명시대의 좋은 일자리





정용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또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로 무장한 4차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제조업은 혁신적인 산업분야로 재탄생되고 있고, 서비스업도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초연결, 초현실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영역이 서로 경계 없이 연결되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가며 사회와 산업 모두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력과 자본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확보하던 기존산업이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일자리에는 많은 부침(浮沈)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을 때도 기술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물론 소멸된 일자리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보완된 형태의 일자리로 재탄생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파괴효과를 완화시켜 왔다.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일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란 경제적인 보상과 근로자 스스로가 느끼는 직무만족도, 사회적 인정 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별로 좋은 일자리라고 정의하는 선호 직업군은 정해져 있다. 최근 우리는 좋은 일자리로 의사, 검사, 판사, 공무원, 연예인 등과 같은 직업군을 꼽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선호하던 직업이 좋은 일자리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의료분야에서도 이미 인공지능이 의사대신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뿐 아니라 금융 종사자, 기자, 변호사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산업 성장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극적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미래 성장동력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미래성장 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고용을 선 순환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근무경력을 쌓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로운 노동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발전 및 진화를 활용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노동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역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안정성, 복지혜택, 근로여건 등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이다.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인한 국민의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의 무덤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될 것이다. TTA